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의 요인으로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3일(목) 미 증시는 연방정부 섣다른 공식 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10월 CPI, 고용보고서(일부 공개) 데이터 부재, 연준위원 매파적 발언 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폭 후퇴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1.65%, S&P500 -1.66%, 나스닥 -2.29%)

연준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 속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점이 이 날 미 증시 하락을 유발. 구체적으로, 베스 해맥('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 다소 긴축적인 수준 유지 필요'), 알베르토 무살렘('통화정책 신중하게 진행해야할 필요, 추가 완화 할 수 있는 여지 제한적'), 닐 카시카리('인플레이션 3%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편') 등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경계하는 모습.

한편, 공식적인 연방정부 섣다른 해제(찬성 222표 vs 반대 209표로 하원 통과 → 대통령 임시에산안 서명)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장기간(43일) 지속된 섣다른 여파로 주요 경기 지표 발표가 부재할 것이라는 소식 또한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 케빈 해닛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따르면, 10월 CPI와 10월 고용보고서(실업률 비공개, 비농업 고용 증감 공개)의 일부는 데이터 집계 부재로 발표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가와 고용 데이터 입수가 불가능한 연준 입장으로서선 불리 금리 인하 결정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 최근 연준위원 다수가 연이어 매파적 발언을 내비치는 것도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내포되어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Fed Watch 기준 12월 FOMC에서의 25bp 금리 인하 확률도 1개월 전 95.5% → 1주 전 69.6% → 현재 51.6%까지 하락, 금리 인하 기대감 상당 부분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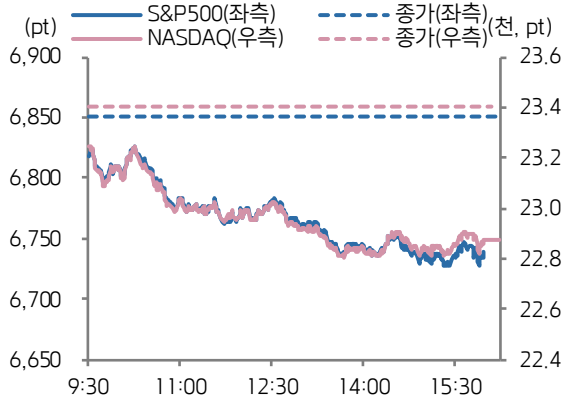
이제 시장의 관심은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연준위원 발언이 수시로 증시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 지표 측면에서는 다음주 중 발표될 미국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9월 데이터까지는 수집 완료)에 대한 시장 민감도 높아질 전망.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크게 후퇴한만큼 현재로서는 고용 둔화가 증시 방향성에 호재(Bad is Good, Good is Bad)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전일 국내 증시는 섣다른 리스크 해소 속 연방정부 재가동에 따른 유동성 유입 기대감 부각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특히, 전일에 이어 개별 호재 뉴스플로우가 지속된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결과 코스닥 상대 우위 현상 지속 (코스피 +0.49%, 코스닥 +1.31%)

금일 국내 증시도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속 기술주, 반도체(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7%) 중심의 미 증시 하락을 반영하며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 강세(금리 인하 불확실성, 섣다른 여파), 엔화 약세(일본 재정확대 및 경기 부양기조),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70원대 레벨까지 상승한 상태. 원달러 환율 상방압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이 제한될 것임을 감안시, 국내 증시도 지수 방향성은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흐름 이어질 전망. 최근 장세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환매 과정 속 기존 주도주 대비 소외주(코스닥, 바이오, 2차전지, 화학 등)로의 반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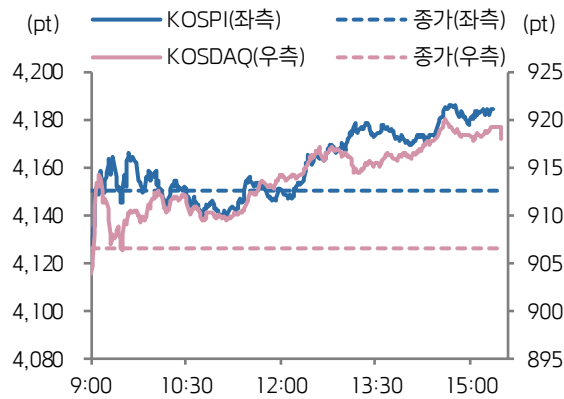
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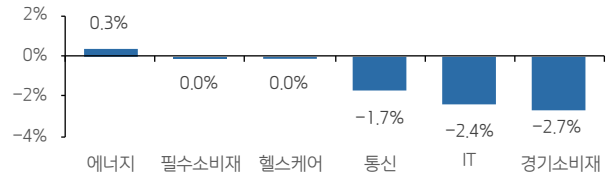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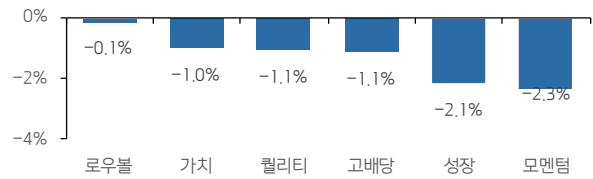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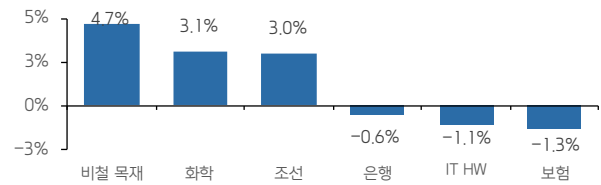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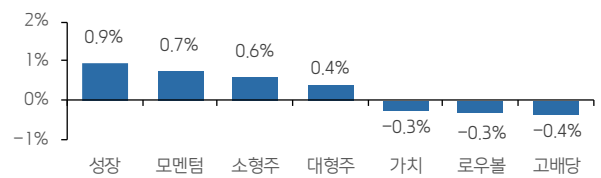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72.95	-0.19%	+9.49%	GM	71.89	+0.07%	+36.08%
마이크로소프트	503.29	-1.54%	+20.06%	일라이릴리	1,022.87	+0.5%	+33.29%
알파벳	278.57	-2.84%	+47.64%	월마트	102.54	-0.87%	+14.35%
메타	609.99	+0.16%	+4.42%	JP모건	309.48	-3.41%	+31.84%
아마존	237.58	-2.71%	+8.29%	엑손모빌	118.79	+0.57%	+13.49%
테슬라	401.99	-6.64%	-0.46%	세브론	155.58	+1.47%	+11.15%
엔비디아	186.86	-3.58%	+39.18%	제너럴일렉트릭	102.54	-0.9%	+14.3%
브로드컴	339.98	-4.29%	+47.69%	캐터필러	553.55	-3.4%	+54.9%
AMD	247.94	-4.23%	+105.27%	보잉	194.58	-0.47%	+9.93%
마이크론	236.95	-3.25%	+182.36%	넥스트에라	83.99	-2.2%	+2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170.63	+0.49%	+73.81%	USD/KRW	1,466.00	-0.2%	-0.43%
코스피200	588.65	+0.33%	+85.21%	달러 지수	99.19	-0.31%	-8.57%
코스닥	918.37	+1.31%	+35.41%	EUR/USD	1.16	+0.35%	+12.35%
코스닥150	1,611.94	+1.92%	+42.67%	USD/CNH	7.10	-0.21%	-3.27%
S&P500	6,737.49	-1.66%	+14.55%	USD/JPY	154.55	-0.16%	-1.69%
NASDAQ	22,870.36	-2.29%	+18.43%	채권시장			
다우	47,457.22	-1.65%	+11.55%				
VIX	20.13	+14.96%	+16.02%	국고채 3년	2.927	+1.7bp	+33.2bp
러셀2000	2,382.98	-2.77%	+6.85%	국고채 10년	3.262	+0.2bp	+39.1bp
필라. 반도체	6,818.74	-3.72%	+36.92%	미국 국채 2년	3.593	+2.5bp	-64.9bp
다우 운송	16,116.98	-1.67%	+1.39%	미국 국채 10년	4.119	+5bp	-45bp
상해종합	4,029.50	+0.73%	+20.22%	미국 국채 30년	4.713	+4.9bp	-6.8bp
항생 H	9,599.06	+0.63%	+31.68%	독일 국채 10년	2.688	+4.5bp	+32.1bp
인도 SENSEX	84,478.67	+0.01%	+8.11%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742.79	-0.77%	+17.3%	WTI	58.69	+0.34%	-13.93%
MSCI 전세계 지수	1,011.78	+0.26%	+20.26%	브렌트유	63.01	+0.48%	-15.58%
MSCI DM 지수	4,415.24	+0.24%	+19.08%	금	4,194.50	-0.45%	+51.6%
MSCI EM 지수	1,407.73	+0.36%	+30.89%	은	53.17	-0.54%	+81.83%
MSCI 한국 ETF	94.07	-1.93%	+84.85%	구리	510.20	-0.07%	+26.71%
디지털화폐				BDI	2,030.00	-2.03%	+103.61%
				옥수수	456.00	+1.5%	+0.16%
비트코인	98,396.20	-3.44%	+5%	밀	551.50	-0.18%	-10.14%
이더리움	3,170.78	-7.35%	-5.25%	대두	1,146.00	+1.08%	+10.86%
				커피	374.25	-0.64%	+34.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